

[목회자 모임]

## “다른 표현 없습니까?”

2019. 9. 20. 이현래 목사

복음은 전파되기 위해서는 전쟁이다.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세상에는 심판이다. 복음은 두루두루 다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잘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좋게 하고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나라를 뿌리는 것이니까 전쟁이다. 잡초가 심어진 밭을 갈아엎고 다른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알고 보면 전쟁이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알아 듣는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는가? 가장 중요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 40여 년 전에 말씀을 받을 때 뭘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받았다. 사람을 찾는구나. 그때 나는 은사,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때이다. 원래도 나는 그런 것에 관계가 없었는데, 목회 하러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것이 있는 곳은 뜨겁고 난리가 나고 그것이 없는 곳은 냉랭하였다.

전에도 말했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에 서대문 순복음 교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꿩 잡는 것이 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려고 쫓아 다녔다. 삼각산으로 부흥회로 쫓아 다녔는데, 나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가보다 하고 접었다.

그리고 C.C.C.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성령 충만을 요구한다. 좀 막연한 말인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다.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 이라는 것이 더 어렵다. 엑스플로74를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대회장을 맡았던 순복음교회 조\*\*목사가 뒷소문에 따르면 C.C.C.에서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적으로 은사로 충만한데, C.C.C.는 믿음으로 충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비웃었다는 것이다. 그럴 법도 하다.

그들은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은사나 뜨겁거나 차거나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40년이 넘도록 한 말은 사람이다. 주제는 언제나 사람이다. 여러분이 테이프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확증이 되었다. 그것들은 다 은사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고 중심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유대인들은 열조라고 한다. 다윗이 죽어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면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책이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책이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다.

내가 줄곧 대구에 온 이후로 사람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했다.

그 길을 쭉 오다보니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오던 배가 마치 어느 항구에 정박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 모호해져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것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었다. 어떻게 저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인가? 또 나는 무슨 죄로 죽게 되었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앞에 가로막았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사람 이야기를 했다.

왜 이렇게 사람이 감춰져 있는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어버렸으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잘된 사람이 하나님 같이 보이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전파할 때 무엇에 부딪쳤겠는가? 한편으로 유대인들을

부딪쳤고,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된다. 이방세계에 가니까 유일신을 믿던 유대인들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뿐이다. 창세기 6장에 봐도 그렇고, 욥기를 봐도 그렇다. 여호와 앞에 모인 자들은 누구인가? 다 천사들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참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면 천사들이 되었다.

이 우주 안에는 무슨 전쟁이 있는가? 알고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전쟁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천사가 하나님 아들인가? 인간이 하나님 아들인가? 이 전쟁이다. 여기서 사람은 인격을 빼앗긴 것이다. 인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 뺏긴 줄을 모르고 그 천사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결전이 붙은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마4:6)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 백성을 구원해 보라고 하니까 동조하게 되어버린다. 비탄하던 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하나님 아들이 되겠다는 식으로 조롱하였다. 가지각색의 사람이 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다 똑같은 말을 한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뭐라고 생각했겠는가? 이때 뛰어내리면 좋겠다고 얼마나 속으로 갈망했겠는가?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뛰어내려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치했다. 그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제자들까지 합세를 한 셈이다. 성질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인가? 사탄의 말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마4:6)는 것이다.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지 뛰어내릴 수도 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는 말이다.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가? 씨 붙이고 나왔는가? 하늘에서 외쳤는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마3:17)라고 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예수님 혼자 들으신 말이다.

변화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승인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잘 모르고 한 말이다. 그래도 그것을 결국 칭찬하셨다. 아무도 하나님 아들로 증명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그 시대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였는가?

희랍세계에 오면 유명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이다. 황제도 하나님 아들, 시인도 하나님 아들, 철인도 하나님 아들이다. 보통 사람을 초월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에 와서 ‘예수는 누구인가?’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의 신격화가 생기게 된다.

예수가 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들은 말이 많아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는 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려면 그것은 전쟁이다.

성경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고 했다. 어떻게 그 피로 구속을 받는가? 이것을 설명하자면 결국 구약을 빙자하지 않을 수 없다. 제단에서 흘리는 피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이다. 자기로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피, 보배로운 피라고 한다. 그들은 유대인들이다. 베드로전서는 유대인을 향해 쓴 책이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남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여러분은 참으로 천재들이다. 나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는 것이다.

돈은 대신 내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빚진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면 된다.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다. 대신 물어준다. 하지만 존재를 어떻게 대신 물어주느냐는 그 말이다.

이스라엘은 묘한 법이 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형 부인은 과부가 되는 것이다. 과부가 되면 기업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을 형수에게 줘야 된다. 다말 사건이 그것이다. 두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었다.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을 주어야 하는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팔자가 세구나. 이 아들을 주었다가는 또 죽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말이 기업을 얻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이다. 살기위해서다. 기업이 없으면 자기는 땅이 없다는

말인데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그 말이다. 기업이 없으면 이제 얻어먹고 살아야 한다. 거지가 되어야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든 것이다. 그때 만일 그런 일이 폭로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 보통 간음사건이 아니다. 목숨을 건, 사활을 건, 중대한 문제이다. 이것이 대속개념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속을 해준다.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이 이해가 되겠는가? 남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나는 거기서 막혔다. 차라리 내가 사람이라도 죽여서 죽을죄를 졌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답답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 죄를 구속했다. 대속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볼 때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행위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진다. 보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교리나 제도로 묶어 놓아서 그렇지 그냥 성경을 보면 다 해석이 달라진다. 브레드런은 모든 제도와 교리를 다 폐지하여 성경을 자유롭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천 갈래 이상 갈라졌다고 한다. 보는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40년 동안 대구에 와서 말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이라는 초점을 놓쳐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은사니 뭐니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알아서 해라, 할 사람은 해라. 나는 그런 식이었다. 아무데도 관심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니까.

그 길로 왔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살짝 비쳤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 이 말과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4:6) 그러면 믿겠다는 말과 다른 말인가?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거기서 마귀와 예수 둘이 뿐이었다. 본 사람이 없고 둘 뿐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는 온 군중이 다 보았다. 온 인류가 다 참여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비껴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아주 점잖게 비껴갔다. 우리도 동의했다.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우리도 점잖게 넘어갔다.

그런데 나는 점잖게 넘어가지 못했다. 여러분이 테이프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사

람이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는가? 사람은 못 만들어 먹는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못 뛰어 내리는 예수라는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 아니다. 예수한테 오니까 딱 그 문제에 봉착한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다.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싶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던 그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으로 물위로 걸어가던 그 능력으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는가? 그런데 결국은 죽고 말았다. 그래서 모두 가버린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는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감춰져 있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예수가 나타나 있다. 이것이 이상한 속임수다. 보통 속임수가 아니다. 나도 그분의 피가 아니고, 그분의 행위가 나를 구속했다. 그가 행하심에 의해서 나는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었다. 막바지에 와서 내가 곤란하고 난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내 모든 짐이 풀어졌다. 참 사람이 저기 있구나. 존재가 저기 있구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있는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것은 존재이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가페 사랑을 내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런 것은 다 행위다. 존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존재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뛰어내리지 못하는데서 비로소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행위냐? 존재냐? 이 문제이다. 행위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고 행위냐? 존재냐? 이것이다. 소유도 사실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인과 아벨이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최초의 종교이다.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형이 아우를 죽였다. 지금도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아벨은 선한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제단아래서 지금까지도 억울하다고 신원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하고 지금도 신원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세계가 올 때까지 아벨은 계속 신원하고 있는 것이다. 선 속에도 악이 들어있고, 악 속에도 선이 들어 있다.

우리 교회에 내놓고 보니까 말이 많다.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시시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간증을 내놓지 무슨 시시비비를 하느냐 것이다. 자기 구속이 확실하면 확실한 구속을 내놓으면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그 말로 다 구속이 되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시시비비한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다.

어디 가서 나와 연합할 예수를 만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존경스러운 예수를 만났다. 경배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나와 연합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너무 좋았다. 너무 통쾌하고 좋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한 말로 함축해줄 수 있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데 안 되고 부딪치는 데가 있다. 나는 이것이 참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 아멘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니저러니 하니까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는데 ‘미안하고 죄송합니다.’고 말하려고 한다. 내가 너무 표현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니까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달라고 쓰려고 한다. 누구라도 시시비비 하지 말고 나는 이렇다고 간증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라도 바꿀 용의가 있다.

왜 하필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는가? 거룩한 주님을 보고 뛰어내리지 못했으니 아니니 하니까 안 된다. 더 좋은 간증이 있다면 나는 당장 바꾸겠다. 그런데 다 찾아봐도 말이 없다. 그래서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공모를 하고 싶다.

세상에 나가보면 별 사람이 다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비기독교인, 수없이 많다. 어제 밤에는 꿈을 꾸었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과 만났다. 불교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한참 대화를 했다. 이름까지 적어왔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야기하는데 신났다.

우리가 어디가도 당당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비기독교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불교인을 만나든지, 우리는 확실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도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유럽은 이미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미국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머지않아서 불교에게 영역을 뺏기고 말 것이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인류를 확실하게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기

독교는 없어지고 만다. 불교 철학자도 이제부터는 불교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소위 민주화, 자본주의화 되어서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거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다. 꼭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 해봐야 소용이 없다.

바울 같은 사람도 공원에 모인 사람에게 한 참 이야기하니까 들을 만하다, 내일 또 와서 듣자고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이다. 지금도 설교 잘하면 들을 만하네, 그런다.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안 된다.

오늘 이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화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와 예수의 연합! 그 안에 있는 내 구속!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백성이 없는데 나라 형태만 만들어 놓는다고 나라가 되겠는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다.

구속이 없이는 다음 단계는 다 엉터리 되어 버린다. 구속이 되어야 된다. 소가 풀을 먹지 개가 풀을 먹겠는가? 개를 모아놓고 풀을 주면 먹겠는가? 소라야 풀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는가? 구속된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신에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제한이 있다. 사람이라는 제한이다. 이 한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출발이 안 된다. 출발 자체가 다른 출발이 되어 버린다. 하나님은 존재를 찾고 있다. 우리 행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찾고 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 위치를 묻고 있다. 이것은 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이지 네가 뭘 했느냐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치를 이탈한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뛰어내리지 못한 아

들을 전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예수,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 이 사람을 지금 전하는 것은 다른 데도 많다.

불교 찬송은 정말 화려하다. 기독교 찬송가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찬송이라는 것은 시다. 한 가지 꽃을 놓고도 파랑다고 할 수도 있고, 빨강다고 할 수도 있다. 근심스러운 꽃이라 할 수도 있고, 기쁨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시다. 부처님 찬송을 들어보면 기독교 600곡 찬송과 비교가 안 된다. 불교 성가대가 있어서 화려하게 나와서 찬양을 하였다. 기독교가 하는 것을 불교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다 할 수 있다.

오로지 한 가지! 구속만 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이다. 이 사역을 빼고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구속은 출입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7:14)고 한다.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오직 한 사람이다. 오직 이 사람뿐이라니까 얼마나 좁겠는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어찌 그렇게만 말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음을 아는가? 내일을 어떻게 아는가? 내일 또 다른 복음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아는가? 모르니까 마지막이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앞에 나온다.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또 나온다.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에 나올 것이니까 지금은 안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가?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중간에 폐렴이 걸렸다. 당시에는 폐렴 약이 없었는데 페니실린이 개발되었다. 아직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약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에 임상실험하고 2세대 3세대 페니실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약을 썼는데 살아났던 것이다. 페니실린이 항생제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언제든지 마지막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3:28)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그때는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전부냐, 다음에 또 있을 것이라고 하면 종교개혁이 되겠는가? 종교개혁을 못한다.

여러분도 목회자들이고 지도자들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듣기 싫어도 이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말이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주면 좋겠다. 좀 아름답고 우아한 말로 사람들이 들으면 옳수 있는 말로 연구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그러면 조용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줄 몰랐다. 너무 쉽고 가장 편하고 만유를 포함한 복음인데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이 유익하다. 내가 이것을 몰랐더라면 아주 쉬운 것이라고 할 텐데, 복잡한 것 뒤에 또 다른 것이 있더라.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겠는가? 그 뒤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사탄의 말이다. 처음부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말이다.

신기하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깊은 곳이거나. 너무 깊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나는 ‘위치(존재)냐 행위냐’이다. 사람들이 행위만 보게 된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뭐하냐,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른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지, 저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구속은 존재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 행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존재에 관계된 것이다.

존재는 존재로 구속이 되지 존재는 행위로 구속이 될 수 없다. 누구 말대로 대속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대속이라는 제도가 있다. 대신 빛 갠아주는, 대신 남편도 되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신약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화두만 던져주려고 했는데 열이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과하게 말했는데 아주 심각한 전쟁이다. 알고 보면 왜 하필이면 예수뿐인가? 당장에 질문하지 않겠는가? 하필이면 예수뿐인가? 우리 사랑방에도 누가 그렇게 질문했다. 왜 하필이면 예수인가? 대답을 못하면 전도를 못한다. 뭘 전도하겠는가? 예수를 전한다고 가서 부처님을 전하겠는가, 누구를 전하겠는가?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그 구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한 말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1:23,24)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절만 가지면 해석에 분분한 여지가 있다. 그런데 30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1:30)라고 했다.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됐다는 것이다.

구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구속이 된 것이다. 나의 구속이 된 것이다. 그러려면 그분과 내가 하나여야 된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아닌 이상 그분이 나의 구속이 될 수 없다.

예수 자신이 우리의 구속이다. 우리의 원형이다. 내 생명 되신다는 말이 그 말이 바로 나다. 나. 떨어질 수 없는 나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라. 예수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예수인줄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다. 예수만 못 뛰어내리는가? 나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가까운가? 가깝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은 무촌지간이다. 촌수가 없다.

부부간은 무촌지간이라고 한다. 계시의 종말은 부부간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부부간이다. 창세기 2장 마지막이 부부이다. 부자간이 아니다. 부부이다. 아주 남남이지만 거기는 촌수가 없다. 아들과 아버지는 한 피기 때문에 촌수가 있다. 거기는 일촌이다. 부부간은 무촌지간이다. 헤어지면 남이지만 만났다하면 무촌이다. 우리가 예수와 무촌지간이라야 되지 일촌지간이 되면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틀어져서 원수된 집안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많다. 내 호적에서 빼가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 같은 피 인데도 평생 한 번도 안본 사람도 있다. 부자간이 그렇다. 그런데 부부간은 헤어졌다가 만날 수도 있다 이혼했다가 합한 사람도

있다. 무촌지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좀 틀어져서 헤어졌으면 바깥에서 혼자 살아보다가 다시 와서 살면 좋겠는데 자존심 것 때문에 못한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괜히 이혼했구나. 왜 이혼하자고 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무촌이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예수와 나는 무촌지간이 되어야지 일촌지간만 되어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막10:8) 이쉬, 이쉬. 아담이 ‘이쉬’라면 하와는 ‘이쉬’이다. 얼마나 그것이 정확한 말인지 모른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놓았을까 싶다.

창세기 1장에도 그렇다.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왜 남성과 여성을 끼워넣는가? 형상을 지으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인간이라는 말이다. 둘이 합하여 인간이라는 말이다.

온 인류가 다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다.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불교도 말을 못한다. 온 인류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가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하면 수십 가지로 항목이 갈라진다. 그러면 사탄이 새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 변명할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듣기 싫어도 ‘뛰어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면 아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존재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사람 대 사람,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 나와 예수,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 그때 우리를 피던 속이던 사탄이 무저갱으로 천년동안 갇힐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다가 마지막에 나와서 유향불이 불붙는 곳으로 확실하게 던져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느 구속에서 속일지 모른다. 아가페 뒤에 숨어서 속이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 뒤에 숨어서 속이고, 별의별 것이 다 있다. 한번 연구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가서 말해야 되고, 나도 나가서 말해야 되는데, 말 때문에 걸린 것 같다. 그렇지만 말이 아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해도 된다. 내가 그것을 취소 못

할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만 있다면 당장 취소할 수 있다. 오늘의 연구 발표를 다음에 기다리겠다. 여러분들의 충분한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